

문학의 길로 이끄는 친절한 안내인

‘詩作法’ 등 창작지침서 쏟아져

최근 서점가에 ‘작법’의 꼬리표를 단 창작안내서들이 이례적인 선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양적인 증가와 함께 판매량에서도 신장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마음은 있어도 엄두를 못내었던 일반인들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서점측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인원과 경쟁률이 급격히 늘어난 대학의 문예창작과 학생들, 그리고 지난 2~3년 사이 신춘문예를 ‘장악’하기에 이른 문화센터나 문예강좌의 수강생 등 문학지망생들의 수가 대폭 증가한 탓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창작법도서는 약 20여종으로, 이 중의 60% 가량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출간돼, 이와같은 고조된 분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시 짓는 법」 「현대시작법」 「현대시 창작입문」 「시의 이해와 작법」 「시창작 방법론」 「우리가 써야 할 시」 「시작법」 「소설창작의 길잡이」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장르의 성격상 소설이나 기타의 문학 장르보다는 시분야에 편중돼 있다. 한편으로 작품의 성향과 문학적 풍토의 이질감 그리고 창작에 있어 실질적인 응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번역물에 비해 국내 저자의 저서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도 이들 도서의 특징이다.

이 가운데 유일한 소설작법인 「소설창작의 길잡이」와 「우리가 써야 할 시」는 이념적 성향이 짙은 것으로, 예전의 창작법도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서구문학 중심의 폭력성을 배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서문에서 밝힌 「소설창작의 길잡이」는 윤정모·이경자·정도상씨 등의 도움을 얻고 ‘문학운동가’ 이재현씨가 주축이 된 가칭 우리소설모임이 엮어낸 책으로, 북한·중국 연변·재일 동포작가들의 작품도 두루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크게 4부분으로 나뉘어진 이 책은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인식을 깊이있게 기술한 1장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이어, 주로 노동문학에 비중을 둔 ‘무엇을 쓸 것인가’에서 리얼리즘 문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써야 할 시」 역시 집필의도가 다분히 문학적 사상성에 치중한 책인데, 최근 시집 「아버지의 손」을 상제한 오철수씨가 집담창작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기존의 작법책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박노해·



창작의 실제적 길잡이가 되고 있는 ‘글쓰기’ 입문서들. 개중에는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도 있다.

백무산씨 등 일련의 노동문학가들의 작품을 예문으로 삽입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시인이여 노동계급의 눈으로 민중의 입장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실천하라”(「우리가 써야 할 시」 3장1절)에서 드러나듯, 이 두 저서에서 추출되는 공통분모는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방법론보다는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주제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창작법」은 1949년에 서정주·조지훈·박목월씨의 공저로 출간되었던 것을 강우식씨의 ‘시 이해론’을 덧붙여 내용은 증보판, 전형적인 종래의 작법도서의 체제로 구성된 이 책은 시창작의 실제적인 모색이 아닌 저자들의 경험과 이를 반영한 자기체험적 시론에 입각한 기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창작법도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시작법도서들은 대부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체험적 시창작론’과 ‘시론적 시창작론’이 그것인데, 시인 김춘수씨의 「시의 이해와 작법」(고려원, 1989)과 이승훈씨의 「시작법」(문학과학비평사, 1988)이 대표적인 저서.

「시의 이해와 작법」에서 저자는, 체험론을 기저로 “시적 인습을 지키는 파괴하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개별적 시작품들이 공유하는 추상적인 법칙을 해명하고 익혀, 보다 나은 창작을 해야 한다”고 시작법도서의 유용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시작법」의 경우는 시론에 입각한 시의 원리와 이의 해명에 초점을 두고, ‘시란 무엇이고’ ‘왜 쓰느냐’하는 문제를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시론에 근거한 연역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시작법」과는 달리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창작의 과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책이 지난

9월 시인 오규원씨가 펴낸 「현대시작법」.

출간된지 한달만에 재판을 거듭하면서 창작법도서로는 첫 베스트셀러목록(교보문고 집계)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예문으로 들고 있는 400여편의 작품들 중에 150여편의 습작품을 삽입시킨 독특한 구성이 돋보인다. 강단에서의 현장체험을 살린 사례연구 중심의

귀납적 서술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오규원씨의 책은, 시를 이해하면서 저지르기 쉬운 오류들을 유형별로 나눠 실고 있다.

이즈음 서점가의 화제가 되고 있는 창작법도서의 붐에 대해 그동안 「시작법」 「소설작법」 등을 기획·출판해 온 장석주씨(청하대표)는 “습작기를 거치면서 느끼는 작법도서의 필요성은 간절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 출판한 도서 중에는 20편 이상을 넘긴 것도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에도 불구하고 창작법도서가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문제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작은 미개척 방법의 실험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작법도서가 이런 창조적인 측면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동하교수(서울시립대 국문과)의 우려와 더불어 좋은 창작법도서는 이론과 실기를 겸한 우수한 필자에 의해서만 집필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최태원 기자

만화로 보는 현대과학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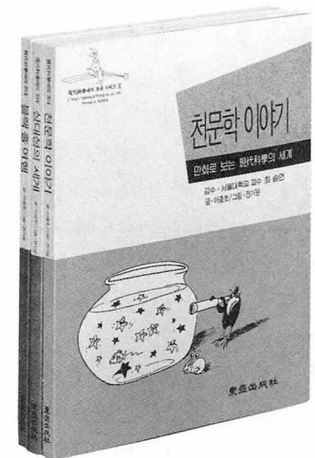
이충호 외 지음 「현대과학에의 초대」

과학 대중화를 위해 현대과학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만화화한 기획시리즈 ‘현대과학에의 초대’ 전15권 중 「천문학 이야기」 「상대성의 이론」 「블랙 홀 여행」 등 3권이 먼저 나왔다.

「천문학 이야기」는 고대 점성술에서부터 현대 천문학에 이르기까지의 천문학의 발달과 역사를 그 주요이론과 함께 소개한 천문학 개설서. 천문학상의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 우주론과 천문학 이론의 발전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상대성의 세계」는 20세기를 지배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와 그림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책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등 상대성이론의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블랙 홀 여행」은 블랙 홀로 뛰어든 주인공 ‘타키온’의 모험을 통해 20세기 과학이 발견한 최대의 신비로 불리는 블랙 홀의 정체를



파헤치고 있다. 스티븐 호킹이 등장, 최신연구를 소개하는 등 블랙 홀의 세계를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소개한 책.

서울대 지구과학과 최승언 교수의 감수 아래 이충호, 이면우 씨가 글을, 전기운 씨가 그림을 각각 맡았다.

동아출판사 / A5변형 / 각 128면 내외 / 각 3000원